손홍락 발행인의 휴먼 인터뷰

조서윤 (주)다원앤컴퍼니 회장

# 전문성·간결함으로 승부하는 인테리어디자인의 미다스

조서윤 (주)다원앤컴퍼니 회장은 국내 인테리어디자인·건축 업계의 수많은 여성 CEO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공한 기업가다. 1995년 3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조 회장은 지난 27년간 골드만삭스, 맥킨지앤컴퍼니, 모건스탠리, 한국IBM, SK건설, 네이버, 카카오, JW메리어트 호텔, 포시즌스 호텔, 파라다이스시티, IFC몰 등 국내외 유명 기업과 호텔의 인테리어디자인을 도맡으며 눈부신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과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경영을 할 때 말을 위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디자인을 할 땐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본론만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게 그의 성공비결이자 경영철학이다.

**Interview** 손홍락 **Editor** 임홍열 **Photographer** 김정연

조서윤 (주)다원앤컴퍼니 회장은 국내 인테리어디자인·건축업계의 신화적인 인물이다. 1995년 3명의 직원과 함께 다원디자인을 설립한 이후 지난 27년간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성장을 거듭해왔다. 2000년대 초반 골드만삭스, 맥쿼리 등 외국계 기업 건물들의 인테리어디자인을 맡으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맥킨지앤컴퍼니와 모건스탠리, 한국IBM, SK건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JW 메리어트 호텔, 포시즌스 호텔, 파라다이스시티, 르메르디앙 서울, 콘래드 서울, IFC몰 등 국내외 유명 기업과 호텔에서 러브콜이 잇따랐다.

회사 설립 당시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다원앤컴퍼니는 26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매출 2425억 원을 기록하며 현재 4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조 회장은 무차입 경영을 하면서도 해마다 연평균 매출은 180%씩 늘렸다. 최근에는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원앤컴퍼니는 국내 인테리어 시장에 공간 설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1세대 인테리어디자인 업체다. 오피스 내부 디자인 컨설팅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고 있는데, 디자인 중에서도 특히 오피스 디자인이 강점인 기업이다. 현재 업계에서 기업의 정체성과 경영철학을 공간에 가장 잘 담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원앤컴퍼니는 2021년 다원디자인에서 지금의 사명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그동안 축적한 디자인 전문성과 시공 노하우로, 시행과 종합건축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조서윤 회장은 한 매체가 뽑은 '2022 파워 여성 CEO 50'에서 33위에 선정됐다. 국내 인테리어디자인업계의 수많은 여성 CEO 중 가장 높은 순위다.

**1995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2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원이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꾸준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다원 임직원들의 열정과 함께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라 봅니다.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라 디자인으로 어필했던 것도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중학교 동창인 심리학 박사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한 곳에 정말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 같다. 쉽지 않은 일인데…."

**다원은 수익성이 높은 회사로 이름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을 때는 언제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수익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인테리어 회사와 비교하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결국 관리의 차이라고 봅니다. 약 20년 전 제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까지 영향을 줄 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극복보다는 시간이 지나니 황당한 루머도 스스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얻은 교훈은 사실과 다른 루머가 나를 흔들어도 그냥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 인테리어로 시작해서 리테일, 주거공간으로, 최근에는 시공까지 업무 영역을 넓혀오셨습니다. 최근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분야인가요?**

다원은 25년 동안 오피스 인테리어디자인 및 시공에 있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의 확대 및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피스와 같은 경쟁력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주택과 커머셜을 독립시켜 각자 본부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해 4개의 사업 부문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즉, 각 사업 부분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전문성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원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효율성 증대입니다. 결국 융합 디자인과 전문성으로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동종 업체들과 비교할 때 다원앤컴퍼니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요?**

커다란 컴플렉스(Complex), 즉 오피스와 주거, 쇼핑몰이 같이 있는 공간을 디자인이나 공사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임직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전해주세요.**

지금은 베트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삼성전자, 롯데호텔, 키자니아 등입니다. 한편 미국 본토 진출을 위해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과 비교해서 각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 조직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어져 있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면 잠실 롯데 애플스토어를 진

조서윤 회장과 본지 손홍락 발행인(오른쪽)

행할 때 많은 공정에 각각의 담당자가 있고, 이들이 각 공정에 대해 모든 결정을 하고, 오픈식 때도 수십 명의 관계자가 와서 본인의 분야를 체크합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국내는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원디자인에서 회사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약 2년 전에 관계사 지분을 취득해 다원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0년 전부터 개발회사와 관계사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건설회사와 같이 건설 면허를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원디자인이란 이름이 좀 안 맞는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하는 조직과 함께 도약하고 싶은 바람으로 다원앤컴퍼니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적 기업 풍토에서 여성 CEO로서의 걸림돌은 없었는지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다원이 롯데월드타워 1층에 애플스토어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ESG에 입각해 마이너리티, 여성이 오너인 이유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제가 한국적 기업 풍토에서 느끼는 것은 남성이 오너인 경쟁사의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경쟁을 당당히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여자 회사는 이겨야지'라던가, 몇 개의 회사가 담합해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소문을 내어 고객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이야기를 분별없이 그냥 믿는 경우가 많아 참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빨리 소문을 사라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CEO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보고 몇몇 임직원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열정', '자신감', '명쾌함'이라고 하네요(웃음).

**기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지만 다원의 나눔은 어떤 형태로 어디에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이익 창출의 목적이 나눔이고 이 나눔이 다시 회사를 더욱 성장시킨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좋은 인재를 구하려면 부자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익의 30%를 임직원들의 임금 상승과 인센티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다원앤컴퍼니가 어떤 회사로 변모되어 있을 것 같나요?**

당연히 변모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보며, 이번에 시행하는 각 사업부 운영은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은 긴 기간이라고 봅니다. 예상하기 어렵지만, 바라건데 전문성이 충만하고 명성을 가진 기업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회사가 되어있기

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도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공간을 즐기는 새로운 환경을 디자인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은 경영 은퇴 후 어떤 CEO로 회자되길 바라시나요?**

경영 은퇴를 무척이나 바라고 있지만 아직도 언제쯤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퇴를 2~3년 안에는 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대표들한테 맡기고 그들도 1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한 후배를 양성했으면 합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강의도 하고 친척, 형제,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평소에 사숙하는, 또는 존경하는 CEO는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여러 매체에서 언급했듯이 아서 겐슬러(Arther Gensler)는 다원과 저의 바람입니다. 세계 최대 건축회사 겐슬러의 창업자인 아서 겐슬러의 인격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로 시작하여 지금은 건축 사무실을 포함해 세계 1위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50개국이 넘는 곳에 70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CEO를 꿈꾸는 동종업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은?**

'본인이 끼가 있다고 느낀다면 힘들어도 열심히 해 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본인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어있을 것'이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오랜 시간 후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 다원앤컴퍼니는 다른 조직을 갖고 보다 다른 속도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안정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

**표지 인물에게 '세계 5대꿀'**
**시베리아 알타이꿀 명품세트를 선물합니다**

시베리아 알타이꿀 명품세트는 영하 30~40°의 혹한에도 생존하는 야생 꿀벌과 허브 수백 종의 합작품으로, 세계자연유산이 선물하는 100% 천연벌꿀(피나무꿀+꽃꿀) 세트입니다. [월간 CEO&]의 표지를 장식한 CEO에게 존중의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